

# 동사의 상적 속성과 접미 피동

김 송 희 \*

##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피동사에 해당하는 능동동사의 상적 속성을 살펴보고 현대국어에서는 생산성이 없어진 ‘-히’ 계 접미사 피동이 어떤 상적 부류를 갖는 동사에 남아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동사의 상적 속성과 접미피동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능동문과 피동문은 의미론적으로나 문법론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 같은 사태를 달리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피동 구성은 국어학의 여러 주제 가운데서도 많이 연구되었는데 한국어에서 피동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이-, -히-, -라-, -가’ 와 같은 ‘-히’ 계 접미사 구성, ‘-어지다’ 구성, ‘되다’ 구성 등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국어의 피동 구성 중에서 특히 ‘-히’ 계 접미사 피동에 주목하였다. 현대국어에서 이미 생산성을 잃은 ‘-히’ 계 접미사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분포하는데, 동사에 따라서 대응하는 접미 피동사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의 각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 대당 접미피동사의 존재 여부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어 접미 피동법의 특성에 관하여서는 일찍이 김윤신(2001)에서 동사의 상적 속성을 이용해 설명한 바 있다. 김윤신(2001)에서는 접미 피동법에는 어휘의미론적인 제약(사건구조상의

---

\*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사 과정

제약)이 있어서,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능동동사만이 피동이 될 수 있으며, 피동의 짝을 갖는 동사와 창조동사를 제외한 완성 동사만이 피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1)</sup> 그러나 한국어의 접미 피동이 복합사건을 가진 동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이러한 김윤신(2001)의 주장은 남승호(2007: 96)에서 소략하게 밝혔듯이<sup>2)</sup> 모든 한국어 동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합사건구조와 단순사건구조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동사란 종결점, 즉 사건이 완결되는 시점이 있는 사태를 나타내는 ‘도착하다, 짓다’ 같은 동사들을 말한다. 이것은 종결점이 있는 동사가 그 종결점을 기준으로 종결점 이전의 ‘완성으로 향하는 과정’과 종결점 이후의 ‘완성 이후의 결과’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하위사건을 포함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한편, 종결점이 없는 사태를 나타내어 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하위 사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달리다, 구르다’와 같은 동사를 가리켜 단순사건구조를 가진 동사라고 한다.

본고는 한국어의 접미 피동이 복합사건구조를 갖는 능동동사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한국어 서술어의 상적 부류 기준을 Smith(1991/1997)을 받아들인 조민정(2000), 남승호(2005, 2004/2007)가 제시한 것을 토대로 설정해본 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피동사 목록을 기준으로 접미 피동사를 갖는 대당 능동사들이 모두 상적으로 완성 동사에 해당하는지 검증해 볼 것이다. 그 다음 접미 피동사를 갖는 대당 능동사 가운데 완성 동사가 아닌 것이 있다면 그러한 동사들은 어떤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완성 동사임에도 대당 접미 피동사가 없는 동사들이 있다면

1) 어휘적으로 피동의 짝을 갖는 동사라는 것은 ‘가르치다-배우다’와 같은 경우를 가리키며, 창조동사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결과 어떤 사물이 존재(김윤신 2001: 107)”하는 경우에 쓰이는 동사를 말한다.

2) ‘(엄마 젖을)빨다, (소리를)듣다’ 등은 모두 행위의 단순사건을 가리키는 동사들이지만 접사에 의한 피동화가 가능하다. (남승호 2007: 96 참조.)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에서 접미 피동사를 갖는 동사들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II. 동사의 상적 속성 분류 기준

상과 관련한 연구에서 술어의 상적 속성에 따른 어휘 분류의 시도는 Vendler(1967)의 서술어의 상적 부류(aspectual classes)에 관한 연구로부터 출발했다. Vendler는 [±과정성], [±한정성], [±순간성]이라는 의미자질을 설정하고, 사건에 종결점(endpoint)이 있는가의 여부, 사건의 지속성 여부, 진행형 적용 여부 등에 따라서 술어를 상태(state), 행위(activity), 달성(achievement), 완성(accomplishment)의 네 가지 사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1) ㄱ. 그는 수학 시간에 너무 지루했다.  
     ㄴ. \*나는 수학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있다.
- (2) ㄱ. 엄마가 책상에 앉으려 잔다.  
     ㄴ. 엄마가 책상에 앉으려 자고 있다.
- (3) ㄱ. 아이가 아빠의 비상금을 발견한다.  
     ㄴ. \*아이가 아빠의 비상금을 발견하고 있다.
- (4) ㄱ. 마네가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그린다.  
     ㄴ. 마네가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그리고 있다.

종결점을 기준으로 (1)~(4)의 술어를 분류해보면, ‘지루하다’와 ‘잔다’는 종결점이 없는 비한정적인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술어이며, ‘발견하다’와 ‘(그림을) 그린다’는 사건의 종결이 있어 한정된 시간의 지속을 상정할 수 있는 술어이다. 한편, 사건의 지속성에 따라 술어들을 분류해보면 순간적으로 사건이 끝나고 마는 ‘발견하다’와, 지속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상정할 수 있는 ‘지루하다’, ‘잔다’, ‘그린다’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행형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 술

어들을 분류해 보면 위의 ‘ㄴ’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행형이 가능한 (2) ‘자다’ 와 (4) ‘그리다’, 진행형이 불가능한 (1) ‘지루하다’, (3) ‘발견하다’ 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1)~(4)의 술어들은 각각 상태, 행위, 달성, 완성 동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남승호(2005)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의미를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Vendler의 분류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한국어 술어의 상적 의미를 적절히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i) 지속 부사어(durative adverbials)와의 결합과 해석, (ii) 시간틀 부사어(time frame adverbial)와의 결합과 해석, (iii) ‘어 있다’와의 결합과 해석, (iv) ‘고 있다’와의 결합과 해석, (v) ‘계속해서’와의 결합과 해석, (vi) 접사파생 피동동사의 형성여부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 (5) ㄱ. 진이는 세 시간 내내 예뻐다.  
 ㄴ. 수영이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ㄷ. <sup>??</sup>그들은 두 달 동안 의자를 고쳤다.  
 ㄹ. \*정아는 세 시간 동안 학교에 도착했다.

(5)는 지속부사어와 서술어를 결합시켜 본 것이다. (5ㄱ)의 상태 술어와 (5ㄴ)의 행위 술어는 지속 시간 부사어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5ㄷ)의 완성 사건과 (5ㄹ)의 달성 사건은 지속 시간 부사어가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다.

- (6) ㄱ. \*진이는 세 시간만에 지겨웠다.  
 ㄴ. <sup>(\*)</sup>수영이는 한 시간 만에 일을 했다.  
 ㄷ. 그들은 두 달만에 의자를 고쳤다.  
 ㄹ. <sup>(\*)</sup>정아는 세 시간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6)은 시간틀 부사어와 서술어를 결합시켜 본 것이다. 시간틀 부사어의 가장 전형적인 의미를 보여 주는 것은 (6ㄷ)의 ‘두 달 만에 의

자를 고쳤다’ 인데, 완성사건에서 시간틀 부사어는 그 사건의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지속 시간을 의미한다. 한편, 시간틀 부사어는 (6ㄱ)처럼 상태 술어를 수식하지 않으며, (6ㄴ), (6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위 및 달성사건의 지속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6ㄴ)과 (6ㄷ)의 시간틀 부사어는 발화의 맥락에 따라 ‘일을 다시 시작하기까지의 시구간’과 ‘출발하고나서 도착하기까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 전제되었을 경우에는 문법성 판단에 문제가 없어지므로 문법성 판단을 ‘(\*)’로 표기하였다.

- (7) ㄱ. \*정아가 하루 종일 예뻐 있다.  
 ㄴ. \*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해 있다.  
 ㄷ. \*그들이 의자를 고쳐 있다.  
 ㄹ. 수영이가 아침 일찍 도착해 있다.  
 ㅁ. 많은 학생들이 관악산-에/-\*을 올라 있다.

(7)에서는 ‘-어 있’이 달성사건인 (7ㄷ) ‘아침 일찍 도착해 있다’에서만 결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ㅁ)에서 알 수 있듯이 ‘-어 있’은 목적격조사 ‘을’을 취하지 못한다.<sup>3)</sup> 즉, ‘-어 있’은 달성 자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결과 상태의 지속이다. (7ㄷ)와 (7ㅁ)는 모두 ‘수영이가 도착한 상태’와 ‘많은 학생들이 관악산에 올라 간 결과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8) ㄱ. \*정아가 하루 종일 지루하고 있다.  
 ㄴ. 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다.

3) 문숙영(1998: 71)에서는 ‘-어 있-’이 ‘과거의 행위에 의한 현재의 상태’를 지시하므로 타동사와 결합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어 있-’은 결과상 구문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의미론적 대상이 주어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동사는 변화된 상태를 경험하는 의미론적 대상이 목적으로 실현되므로, 결과상의 ‘-어 있-’과는 결합할 수 없다.

- ㄷ. 그들이 의자를 고치고 있다.
- ㄹ. ??수영이가 아침 일찍 도착하고 있다.

(8)은 ‘-고 있-’과 상태성 술어 ‘예쁘다’ 및 달성 동사 ‘도착하다’와 결합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는 ‘-고 있-’이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태성 술어는 그 지시하는 사건의 내용이 균질하여 단순한 상태만을 나타낼 뿐, 과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 있-’과 결합이 어렵고, 달성 동사는 지시하는 사건이 순식간에 끝나서 지속성이 없으므로 ‘-고 있-’과 결합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8ㄴ), (8ㄷ)은 ‘-고 있-’이 행위 및 완성의 술어와 결합하여 ‘공부하는 과정의 지속’과 ‘그들이 의자를 고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sup>4)</sup>

- (9) ㄱ. 정아는 계속 예뻐다.
- ㄴ. 진이는 계속 공부하고 있다.
- ㄷ. 그는 계속 의자를 고쳤다.

---

4) 그러나 ‘-고 있-’은 과정의 지속 외에도 ‘결과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 (1') ㄱ. 손님들이 식당을 채우고 있다.
- ㄴ.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 ㄷ. 진이가 손톱에 파란색 메니큐어를 칠하고 있다.(남승호 2005: 277)

(1'ㄴ)의 예는 (1'ㄱ)과는 달리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어려우며, ‘손님들이 식당을 가득 채우고 난 결과의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가득’이라는 정도 표현의 유무에서 왔다. 한편 (1'ㄷ)은 메니큐어를 칠한다는 ‘과정의 지속’뿐만 아니라 메니큐어를 칠한 ‘결과 상태 지속’의 의미도 상황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때는 사건의 결과가 재귀적 해석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고 있-’은 결합하는 동사구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행위 및 완성 동사와 결합할 때 ‘-고 있-’은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지만, 정도부사가 결합한 달성 및 완성의 타동사와 결합할 때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며, 재귀적 해석을 허용하는 사건에서는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한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 ㄹ. \*수영이가 계속 도착했다.
- ㅁ. 학생들이 계속 도착했다.

(9)는 술어와 ‘계속(해서)’를 결합해 본 것이다. (9ㄱ)과 (9ㄴ)의 단순사건에서 ‘계속’은 ‘예쁜 상황’과 ‘공부하고 있다’는 사건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9ㄷ)의 완성사건에서도 ‘계속(해서)’는 사건의 끊임없는 지속을 나타내지만 이 때 끊임이 없는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사건이다. 즉 이 경우에는 ‘의자를 고친 결과’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고치는 과정’이 계속된다. (9ㄹ)과 (9ㅁ)은 탈성사건과 ‘계속(해서)’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인데 ‘도착하다’라는 탈성 사건이 ‘계속’과 결합했을 때에는 거듭 반복되는 해석을 보여줌으로 단수의 해석만을 요구하는 (9ㄹ)은 비문이 된다.<sup>5)</sup>

- (10) ㄱ. 책상위에 책을 쌓았다.
- ㄴ. 책상위에 책이 쌓였다.
- (11) ㄱ. 공원에 탑을 쌓았다.
- ㄴ. \*공원에 탑이 우뚝 쌓였다. (탑, 계단 등)
- (12) ㄱ. 생나무를 깎았다. - 생나무가 깎였다.
- ㄴ. 도장을 깎았다. - \*도장이 깎였다. (남승호 2005: 281)

(10)~(12)는 피동동사를 이용해 본 예문이다. (10)과 (11)은 똑같은 ‘쌓다’ 동사가 쓰인 예문인데, (10)에서와 같이 ‘쌓다’가 처소 이동의 해석을 가지면 피동이 되지만, (11)에서와 같이 짓는 사건, 즉 없던 대상을 만들어 내는 사건에서는 피동화가 불가능하다.<sup>6)</sup> (12)

---

5) 완성의 사건도 ‘계속’과 더불어 반복의 의미를 보일 때도 있다.

(2') 서울대학교는 계속 새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탈성의 사건은 ‘계속(해서)’와 결합했을 때 하위 반복 해석만이 가능하지만, 완성의 사건은 ‘계속’과 결합했을 때 ‘반복’과 ‘과정의 지속’ 두 가지 경우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6) 김윤신(2001)은 없던 대상을 만들어 내는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를 가리켜

또한 동일한 동사가 다른 구문에 쓰이면서 피동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대상 논항인 ‘생나무’가 원인 과정과 결과 상태에 모두 있을 때는 (12ㄱ)에서처럼 피동화가 가능하지만, 대상 논항인 ‘도장’이 원인 과정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결과 상태에만 나타날 때는 (12ㄴ)에서처럼 피동화가 불가능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남승호(2005)에서는 한국어 술어의 상적 부류를 Vendler보다 좀 더 세분화된 위의 기준들을 근거로 하여 상태, 행위, 달성, 동사로 구분하였다.

한편 Smith(1991)와 조민정(2000)에서는 동사의 의미는 동사 어휘 그 자체보다는 그 어휘가 무엇과 결합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동사보다는 ‘동사구’를 대상으로 술어의 상적 속성 분류를 시도하였다. 조민정(2000)은 동사구의 상적 특성을 [±상태성], [±완성성], [±순간성]으로 설정해 놓고, (i) ‘-고 있-’과의 공기, (ii) 대용화 현상과 의사-분열문 현상, (iii) ‘-고 있-’에서 보이는 함의의 차이, (iv) ‘T-동안’ 및 ‘T-만에’ 부사어와의 공기, (v) 접속문 검증법과 ‘~다가 말다’ 구문, (vi) ‘양태부사와의 결합’, (vii) ‘서법 형태와의 공기 제약’, (viii) ‘의도부사 ‘일부러’ 및 명령문’ 등과 같은 통사적 기제에 따라 동사구의 상적 특성을 검증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동사구는 상태동사구, 순간동사구, 행위동사구, 달성동사구, 완수동사구로 분류된다. 이 기준들 중 핵심 개념들을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sup>7)</sup>

- (13) ㄱ. \*하늘이 높고 있다.  
 ㄴ.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ㄷ. 가마솥에는 쇠고기 국이 끓고 있었다.  
 ㄹ. 철수가 정상에 오르고 있었다.  
 ㅁ. \*그는 실을 가위로 끊고 있었다.

“창조 동사”라 하였다.

7) 이하 (13)~(19)의 예문은 (조민정 2000: 53-118)의 것을 사용했다.



(13)은 동사구에 ‘-고 있-’을 결합시켜 본 구문들이다. (13ㄱ)에서 상태동사구인 ‘높다’는 ‘-고 있-’과 함께 쓰이지 못한다. 이것은 (8ㄱ)의 ‘지루하고 있다’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태 동사구의 상태가 어떤 과정도 결과도 갖고 있지 않아서 과정의 진행 또는 결과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과 의미상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그 외의 동사구 (13ㄴ)~(13ㄷ)에서 ‘-고 있-’은 자연스러운 결합을 보인다.<sup>8)</sup> 한편, (13ㄹ)의 달성 동사구에서는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끓다’라는 사건이 ‘-고 있-’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14) ㄱ. \*할머니는 입이 걸었고, 어머니도 그렇게 했다.

ㄴ. 선희는 사기 그릇을 깨뜨렸고 미란이도 그렇게 했다.

(15) ㄱ. \*할머니가 했던 것은 입이 걸었다.

ㄴ. 선희가 했던 일은 사기 그릇을 깨뜨린 것이다.

(14)는 어떤 문장들 사이에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 경제성을 위하여 중복되는 잉여적 표현을 제거하는 대용화(anaphora)를 적용해 본 문장이다. 상태동사구인 (14ㄱ)의 ‘입이 걸다’는 대용화가 안 되고, 비-상태 동사구 (14ㄴ)은 대용화를 하여도 자연스럽다. (15)는 강조구문으로 ‘NP가 ~한 것은 ~이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의사-분열문을 형성해 본 것인데, 상태동사구인 (15ㄱ)은 의사-분열문 형식을 적용했을 때 비문이 되며, 비-상태동사구인 (15ㄴ)은 의사-분열문 형식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상태동사구는 행위성을 갖지 않는 반면, 대용화 및 의사-분열문은 행위자의 행위를 전제하기

8) (13ㄴ)~(13ㄹ)은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긴 하지만 ‘-고 있-’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고 있-’은 어떤 동사구에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13ㄴ)의 ‘반짝이다’라는 단일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고 있-’을 만나 지속 대신 ‘반복’의 의미를 갖게 된 것을 보이며, (13ㄷ)의 ‘끓다’는 ‘-고 있-’과 만나 그 동작이 진행된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13ㄷ)의 ‘정상에 오르다’는 ‘-고 있-’과 결합하여 완성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의 지속을 의미하며, (13ㄹ)의 ‘동정심을 가지다’는 ‘-고 있-’과 결합하여 완결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16) ㄱ.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 ㄱ'. 어떤 나그네가 산길을 갔습니다.  
       ㄴ.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있다.  
 (↗) ㄴ'. 기차가 역에 도착했다.

(16)은 ‘고 있’ 구문과 ‘있’ 이 결합하는 동사구에 따라 합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16ㄱ)은 (16ㄱ')를 함의하지만 (16ㄴ)은 (16ㄴ')를 함의하지 못한다. 이것은 행위동사구에서는 그 내적 시간 구조가 균질하여 ‘산길을 가다’ 가 멈춰도 산길을 간 것인데 반해, 완성동사구에서는 그 사태가 종결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고 있’ 이라는 종결점을 이르기 전의 과정은 ‘있’ 이라는 완료 상태를 함의할 수가 없다.

- (17) ㄱ.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수화기를 한 시간 동안 켜  
       쳤다.  
       ㄴ. \*어둠 속에서도 새파란 하늘빛은 두 시간 동안 놀라울 만큼 고왔다.  
       ㄷ. \*그 선수는 10분 동안 다리를 다쳤다.  
       ㄹ. \*가정 주부들이 겨울 동안 털스웨터를 떴다.

(17)에서 ‘T-동안’ 부사구는 (17ㄱ)과 같은 순간 동사구와 어울리지 못한다. 순간 동사구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T-동안’ 은 (17ㄴ)과 같은 상태동사구와 결합할 수 없고 (17ㄷ)과 같은 달성동사구, (17ㄹ)과 같은 완수동사구와 결합하지 못한다.

- (18) ㄱ. 그가 일 년만에 박물관 설계도를 완성했다.  
       ㄴ. ?\*철수가 10분만에 뛰었다.  
       ㄷ. \*그 선수는 10분 동안 다리를 다쳤다.  
       ㄹ. ?한 시간 만에 비가 그쳤다.

‘T-만에’는 완성성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 (18ㄱ)의 ‘T-만에’는 완수동사구와 결합하여 ‘박물관 설계도를 완성하는 일 년이 걸렸다’라는 통사적 구성과 같은 의미를 보여 준다. 한편 (18ㄴ)은 ‘오늘은 다른 날보다 빨리 뛰었다’는 등의 특정한 맥락이나 해석이 전제될 경우에는 문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비문이 됨을 보여 준다. (18ㄷ)에서는 달성동사구에서 ‘T-만에’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ㄹ)에서처럼 달성동사구와 ‘T-만에’가 결합 가능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T-만에’가 ‘T-후에’와 같은 의미를 띤다.

(19) ㄱ. 그는 술잔을 입에 대다가 말았다.

(↗) ㄱ'. 그는 술잔을 입에 대었다.

ㄴ. 그는 대학생만이 이 땅의 학생이냐고 따지다 말았다.

(→) ㄴ'. 그는 대학생만이 이 땅의 학생이냐고 따졌다.

(19)는 ‘~다가 말다’ 구문과 술어를 결합시킨 예문이다. ‘~다가 말다’ 구문은 종결점을 향해 진행되는 사태를 순간적으로 부정하는 구문으로, (19ㄱ)은 (19ㄱ')의 ‘-었-’을 함의하지 못한다. 조민정(2000: 74)에서는 이러한 함의가 불가능한 까닭을 “사태가 진행되는 단계에 행위나 동작을 그만 두게 되면 그러한 사태는 완수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한편, 완성점을 가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하는 사건을 의미하는 동사구는 (19ㄴ)에서처럼 ‘~다가 말다’ 구문과 결합해도 ‘-었-’을 함의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Smith(1991) 및 조민정(2000)에서는 서술어의 상적 부류에 차이를 가져오는 의미자질을 [±상태성], [±완성성], [±순간성]으로 설정해 놓고, (13)~(19)에서 설명한 기준 들을 통해 동사구를 상태동사구, 순간동사구, 행위동사구, 달성동사구, 완수동사구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동사의 상적 부류에 대한 Vendler(1967)와 남승호(2005, 2004/2007), 조민정(2000)의 서술어의 상적 속성 분류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9)</sup>

[표 1] Vendler(1967), 남승호(2005, 2004/2007), 조민정(2000)의 동사의  
상적 속성 분류 기준 비교

Vendler(1967)		남승호(2005,2007) <sup>10)</sup>		조민정(2000)			
상 태	[+종결점] [+지속성]	× 진 행 형	○ 지속시간부사어 × 시간을 부사어 × '어 있' × '고 있' 계속: 상황의 지속	상 태	+	상 태	× '고 있' × 의사분열문 및 대용화 × 'T-동안' 11) × 'T-만에'
행 위	[+종결점] [+지속성]	○ 진 행 형	○ 지속시간부사어 (×) 시간을 부사어 × '어 있' ○ '고 있' 계속: 사건의 지속	순 간	-	완 성	○ '고 있' : 사건의 반복 ○ 의사분열문 및 대용화 ○ 'T-동안' : 사 건 반복시 × 'T-만에' '다가 말다' → '있'
				행 위			○ '고 있' : 동작의 진행 ○ 의사분열문 및 대용화 ○ 'T-동안' (×) 'T-만에' '다가 말다' → '있' '고 있' → '있'
달 성	[+종결점] [+지속성]	× 진 행 형	× 지속시간부사어 (×) 시간을 부사어 ○ '어 있' (자동사) × '고 있' 계속: 사건의 반복	달 성	-	상 태	× '고 있' ○ 의사분열문 및 대용화 × 'T-동안' (×) 'T-만에' (= 'T-후에' )
완 성	[+종결점] [+지속성]	○ 진 행 형	× 지속시간부사어 ○ 시간을 부사어 × '어 있' ○ '고 있' 계속: 완성까지의 과정 지속	완 수			○ '고 있' : 완결상태 지속 ○ 의사분열문 및 대용화 × 'T-동안' ○ 'T-만에' '다가 말다' → '있' '고 있' → '있'

9) [표 1]에서 (×)는 맥락이 주어졌을 때 가능하고 나머지의 경우에 비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고는 앞으로 사용할 기준 선택에 앞서 조민정(2000)의 ‘순간 동사구’ 범주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어 동사의 상적 속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 Vendler(1967) 및 남승호(2005)의 4분류 체계를 따를 것임을 미리 밝힌다. Smith(1991) 등의 논의에서와 같이, 시작점이 곧 종결점인 ‘순간성(semelfactive)’이라는 상황유형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재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내용은 복합사건구조와 완성 동사이므로 그 논의가 전통적인 4분류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고에서 주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김운신(2001) 또한 피동사의 사건구조상의 제약을 4분류 체계 안에서 언급하였으므로 본고 또한 같은 범주에서 한국어 동사의 상적 속성을 논의하려 한다.

이에 덧붙여, 조민정(2000)에서는 순간동사구의 ‘~다가 말다’ 구문이 ‘있’을 함의하지 못한다는 검증 기준에 오류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민정(2000: 101)에서는 상기(上記)한 일련의 구문과의 결합을 통해 검증된 순간동사구 목록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순간동사구의 ‘~다가 말다’ 구문은 ‘있’을 함의하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순간동사구 목록 가운데 몇 가지 동사들에 대해 ‘~하다 말다’ 구문과 ‘있’의 함의관계를 따져보면 ‘~하다 말다’ 구문은 ‘있’을 함의하기도 한다.

(20) ㄱ. 골키퍼가 상대편 공격수를 잡기다 말았다.

(→) ㄱ'. 골키퍼가 상대편 공격수를 잡졌다.

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 후 내쉬다 말았다.

(→) ㄴ'.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 후 내쉬었다.

10) 피동동사 형성여부는 상적 속성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복합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모두 나타나는 대상이 있느냐의 여부를 가르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11) ‘철수는 3시간 내내 지루했다’와 같은 다소 긴 시구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철수는 잠깐 동안 지루했다’와 같은 특정한 시구간 또는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T-동안’은 상태동사구와 결합할 수 없다.

(20)은 조민정(2000)이 순간동사구로 분류한 ‘갈기다’와 ‘내쉬다’를 ‘~하다 말다’ 구문과 ‘-었-’구문에 결합시켜 본 것이다. 그리고 예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두 동사에서 ‘~하다 말다’ 구문은 ‘-었-’을 함의한다. 물론 (20ㄴ)의 경우 ‘내쉬다 말았다’라는 사건이 ‘내쉬었다’는 사건을 완전히 함의한다고 보기에는 직관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민정(2000: 73)에 따르면 ‘~하다 말다’ 구문은 순간적인 사태를 부정하므로 해당 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20ㄴ)에서는 숨을 내쉴 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쉬다 멈추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조민정(2000)에 순간동사구 검증에 사용한 ‘~하다 말다’ 구문과 ‘-었-’의 함의관계라는 기준은 애초에 그 적용이 불명료한 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민정(2000)이 제안한 동사의 부류 검증 기준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한해 취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다음 장에서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동사, 즉 종결점을 갖고 있는 동사를 검증하기 위해 위의 동사의 상적 속성 분류 기준 가운데 (i) 지속시간부사어(T-동안)의 공기 가능 여부, (ii) 시간틀 부사어(T-만에) 공기 가능 여부, (iii) ‘~하다 말다’ 구문의 ‘-었-’ 함의 여부의 세 가지 기준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i)과 (ii)의 기준을 취하는 까닭은 이 두 기준에 대해서 남승호(2005, 2007) 및 조민정(2000)이 공히 동사의 상적 속성의 검증 도구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기준이 복합사건구조와 단순사건구조를 가려내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ii)의 기준을 취하는 까닭은, 이 함의관계가 참일 경우 해당 동사는 종결점을 갖고 있지 않은 동사, 즉 단순사건구조를 가진 동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 III. 한국어 피동사의 상적 부류

#### 1.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완성 동사의 피동사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한국어 피동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1) 표준국어대사전의 피동사 목록

가려보다, 가로걸리다, 가로놓이다, 가로막히다, 가로물리다, 가로보이다, 가로질리다, 가로채이다, 가리이다, 갇히다, 갈리다, 갈리다, 갈리다, 갈리다, 갇히다, 감기다, 감기다, 감빨리다, 감싸이다, 감추이다, 깨발리다, 깨이다, 깨이다, 거들리다, 거머잡히다, 거머쥐우다, 건너다보이다, 건너질리다, 건너짚이다, 건들리다, 걷어채다, 걷잡히다, 걷질리다, 걷히다, 걷히다, 걸리다, 걸메이다, 걸어채우다, 걸키우다, 검 뜯기다, 게발리다, 겹질리다, 겹놓이다, 겹들이다, 겹쌓이다, 겹쓰이다, 겹씩우다, 겹달리다, 겹들리다, 곁딸리다, 고르잡히다, 곤두박이다, 곧이들리다, 곱걸리다, 곱꺾이다, 곱놓이다, 곱썩히다, 공먹히다, 피이다, 피이다, 구기질리다, 구어박히다, 굽어보이다…를 비롯하여 573개.<sup>12)</sup>

본고는 (21)의 피동사 목록 중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205개 피동사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그 피동사의 원형 동사를 2장에서 언급한 (i) 지속시간부사어(T-동안)의 공기 가능 여부, (ii) 시간틀 부사어(T-만에) 공기 가능 여부, (iii) ‘~하다 말다’ 구문의 ‘있’ 함의 여부를 기준으로 그 상적 속성을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동사는 김운신(2001)이 밝힌 대로 완성 동사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는 동사들 중 완성사건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완성사건이 갖는 ‘중결점을 향하는’ 의미가 피동에 잘 어울리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Comrie(1981)가 언급한 것처럼 피동은 기본적으로 완결의 사건을 나타낸다. 이를 증명하듯 한국어의 피동사 또한 표현

12) 표준국어대사전의 피동사 목록의 전체 내용은 [별첨 1] 참조.

의 중점을 결과사건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처럼 표현의 중점이 결과사건에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표현하는 사건에 시작과 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완결의 사건을 나타낸다는 것은 즉 결과사건의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한다는 말인데, 종결점이 없는 단순사건에서는 그 내부에서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어 결과사건의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서술어가 표방하는 사건에 분명한 종결점이 있는 완성 동사에서는 종결점 이후의 결과 상태를 두드러지게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완성사건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ㄱ. 나는 친구와 잔디밭을 거닐었다. → ?

(23) ㄱ. 연필을 깎다 → ㄴ. 연필이 잘 깎이다.

(22)는 종결점이 없는 행위 동사 ‘거닐다’에 대응되는 피동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접미 피동사 대신에 ‘-어지다’ 구성을 사용하면 억지스럽게나마 ‘잔디밭이 거닐어졌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처럼 종결점이 없는 동사에는 잔디밭을 거닐기 전의 과정사건과 잔디밭을 거닐 후의 결과사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사건의 시점에서 사건을 기술하는 피동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대응되는 피동 표현도 어색하게 된다.

반면 (23)은 완성 동사 ‘깎다’의 사건이 피동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대상 물체를 깎는다는 종결점이 분명한 ‘깎다’와 같은 동사는, 그 종결점을 전후로 하여 대상이 깎이기까지의 과정사건과 대상이 깎인 후의 결과사건으로 그 하위사건이 나뉘며, 깎는다는 행위 자체도 어떤 완성된 ‘깎인’ 시점을 향해 가는 결과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결과 사건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피동 표현 ‘깎이다’가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하위 사건을 갖추고, 어떤 사건의 완성을 중점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 때문에 완성 동사는 많은 경우에 그에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단순사건구조를 가진 행위 동사의 피동사

그러나 대당 피동사를 가지는 동사들의 상적 부류를 검증한 결과 단순사건구조를 갖는 동사들 또한 피동사를 가지기도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의 동사들은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동사, 즉 ‘사건의 종결점이 존재하여 종결점 이전의 과정과 이후의 결과라는 두 가지 하위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가 아님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3)</sup>

〔표 2〕 단순사건임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는 동사 검증 결과표

	T-동안(지속)	T-만에	‘하다 말다’ → ‘있-’	상적 부류
가능	단순사건	완성사건	행위	
제약	복합사건	그 외 사건	복합사건	
값다 > 값히다	취가 이빨로 나무를 한 시간 동안 값었다.	(*)취가 이빨로 나무를 한 시간 만에 값었다.	함의	행위
건들다 > 건들리다	그는 탑의 한 귀퉁이를 한 시간 동안 건들었다.	(*)그는 탑의 한 귀퉁이를 한 시간 만에 건들었다.	함의	행위
긁다 > 긁히다	그녀는 머리를 한 시간 동안 긁었다.	(*)그녀는 머리를 한 시간 만에 긁었다.	함의	행위
꼬집다 > 꼬집히다	친구가 내 볼을 한 시간 동안 꼬집었다.	(*)친구가 내 볼을 한 시간 만에 꼬집었다.	함의	행위
꾸다(꿈을) > 꾸이다	나는 한 시간 동안 꿈을 꿔다.	(*)나는 한 시간 만에 꿈을 꿔다.	함의	행위
끝다 > 끝리다	그는 수레를 한 시간 동안 끝었다.	(*)그는 수레를 한 시간 만에 끝었다.	함의	행위
내뿜다 > 내뿜기다	폭포가 물을 한 시간 동안 내뿜었다.	(*)폭포가 물을 한 시간 만에 내뿜었다.	함의	행위

13) [표 2]에서 본고의 직관에 따라 문법성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동사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동사를 발견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T-동안(지속)	T-만에	‘하다 말다’ → ‘있.’	상적 분류
가능	단순사건	완성사건	행위	
제약	복합사건	그 외 사건	복합사건	
누다 > 누이다	오줌을 한 시간 동안 쳤다.	(*)오줌을 한 시간 만에 쳤다.	함의	행위
들볶다 > 들볶이다	시아머니가 며느리를 한 시간 동안 들볶았 다.	*시아머니가 며느리를 한 시간 만에 들볶았다.	함의	행위
떨다 > 떨리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몸을 한동안 부르르 떨었다.	(*)그녀는 분에 못 이겨 몸을 한 시간 만에 부르 르 떨었다.	함의	행위
문지르다 > 문질리다	손을 수건에 한 시간 동안 문지르다.	(*)손을 수건에 한 시간 만에 문지르다.	함의	행위
밀다 > 밀리다	수레를 뒤에서 한 시 간 동안 밀다.	(*)수레를 뒤에서 한 시 간 만에 밀다.	함의	행위
받들다 > 받들리다	그 부부는 외동딸을 금지옥염으로 평생 받들었다.	*그 부부는 외동딸을 금 지옥염으로 한 시간 만에 받들었다.	함의	행위
보다 > 보이다	그는 텔레비전을 한 시간 동안 보았다.	(*)그는 텔레비전을 한 시간 만에 보았다.	함의	행위
보체다 > 보체이다	꼬마가 밥을 달라고 한 시간 동안 보챘다.	(*)꼬마가 밥을 달라고 한 시간 만에 보챘다.	함의	행위
부리다 > 부리이다	주인이 일꾼을 한 시 간 동안 부렸다.	*주인이 일꾼을 한 시간 만에 부렸다.	함의	행위
부치다 > 부치이다	그는 신문지로 한 시 간 동안 바람을 부쳤 다.	(*)그는 신문지로 한 시 간 만에 바람을 부쳤다.	함의	행위
부르다 > 불리다	어머니가 아이를 손 짓하며 한동안 불렀 다.	(*)어머니가 아이를 손짓 하여 한 시간 만에 불렀 다.	함의	행위
불다 > 불리다	소가 콧감을 한 시간 동안 불었다.	(*)소가 콧감을 한 시간 만에 불었다.	함의	행위
불들다 > 불들리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 목을 한 시간 동안 꼭 불들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목 을 한 시간 만에 꼭 불들 었다.	함의	행위
비추다 > 비추이다	난로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루를 한 시 간 동안 비추었다.	(*)난로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마루를 한 시간 만에 비추었다.	함의	행위
빨대(입으로) > 빨리다	아기가 젖을 한 시간 동안 빨았다.	(*)아기가 젖을 한 시간 만에 빨았다.	함의	행위
써먹다 > 써먹히다	아이에게 교환한 수 뭉을 한 동안 써먹다.	(*)아이에게 교환한 수뭉 을 한 시간 만에 써먹다.	함의	행위
쓰대(물건들) > 쓰이다	그는 한 시간 동안 면도기를 썼다.	(*)그는 한 시간 만에 전 기 면도기를 썼다.	함의	행위
쓸다 > 쓸리다	그녀는 마당을 한 시 간 동안 쓸었다.	(*)그녀는 마당을 한 시 간 만에 쓸었다.	함의	행위
썰다 > 썰히다	소가 여물을 한 시간 동안 썰었다.	(*)소가 여물을 한 시간 만에 썰었다.	함의	행위
엇보다 >	나는 숨어서 사내를	*나는 숨어서 사내를 한	함의	행위

	T-동언(지속)	T-만에	‘하다 말다’ → ‘있-’	상적 부류
가능	단순사건	완성사건	행위	
제약	복합사건	그 외 사건	복합사건	
엿보이다	한 시간 동안 엿보았다.	시간 만에 엿보았다.		
주부르다 > 주물러다	그녀는 한동안 빨래를 주물렀다.	(*)그녀는 한 시간 만에 빨래를 주물렀다.	함의	행위
꺾어뜯다 > 꺾어뜯기다	그녀는 가슴을 한동안 꺾어뜯었다.	(*)그녀는 가슴을 한 시간 만에 꺾어뜯었다.	함의	행위
짓누르다 > 짓눌러다	사내가 두 손으로 상대의 목을 한 시간 동안 짓눌렀다.	*사내가 두 손으로 상대의 목을 한 시간 만에 짓눌렀다.	함의	행위
쪼다 > 쪼이다	닭이 모이를 한 시간 동안 쪼았다.	(*)닭이 모이를 한 시간 만에 쪼았다.	함의	행위
쫓다 > 쫓기다	사냥꾼이 꿩자국을 따라 노루를 한동안 쫓았다.	(*)사냥꾼이 꿩자국을 따라 노루를 한 시간 만에 쫓았다.	함의	행위
품다 > 품기다	암탉이 알을 한 시간 동안 품었다.	(*)암탉이 알을 한 시간 만에 품었다.	함의	행위
활다 > 활이다	개가 빈 그릇을 한 시간 동안 활었다.	(*)개가 빈 그릇을 한 시간 만에 활었다.	함의	행위
혈뜯다 > 혈뜯기다	그 친구는 뒤에서 한 시간 동안 남을 혈뜯었다.	(*) 그 친구는 뒤에서 한 시간 만에 남을 혈뜯었다.	함의	행위
휘두르다 > 휘둘러다	그는 한 시간 동안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는 한 시간 만에 몽둥이를 휘둘렀다.	함의	행위

[표 2]는 단순사건구조를 가진 행위 동사들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단순사건구조를 가졌음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고 있는 이 동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을 ‘의미론적 타동성(semantic transitivity)’ 중 ‘주어의 책임(responsibility of the subject)’ 개념으로 해소해보고자 한다. 타동성이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전하는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피동은 통사론적 타동성, 즉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3형식 문장인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승격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통사론적 타동성 개념만으로는 통사론적으로 타동사임에도 피동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통사론적으로 타동사가 아니면 피동 표현이 가능한 동사들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으며, 이에

등장한 것이 의미론적 타동성 개념이다. 의미론적 타동성이란 의미적인 측면에서 동사를 통해 행위가 주어에서 목적어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론적 타동성과 관련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어의 책임 개념이다.

(24) Everyone saw the accident. The accident was seen by everyone.

(25) His colleagues dislike him. He is disliked by his colleagues.

Mattia-Viviés(2009: 105)에 따르면 주어의 책임이란 피동 표현을 가능케 하는 요소인데, 어떤 목적어가 주어가 하는 행위에 영향을 받고, 그 목적어는 일어난 행위와 더불어 상황을 구성하는 목적어로서 완전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주어의 영향력을 가리킨다. 이를 (24)~(25)의 예문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24)에서 the accident는 모든 이에게 보인 사실(being seen)에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보인 사실과 더불어 비로소 이 상황이 완전해진다. (25)에서 him은 그의 동료들이 그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고, 또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비로소 이 상황이 완전해진다. 다시 말해 (24)와 (25)에서 주어는 본 일, 싫어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개념은 일종의 타동성과 행위자성을 가지고 있어 피동표현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된다.

Mattia-Viviés(2009)의 이 논의는 영어의 상태 동사(stative verb)가 피동 표현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표 2]에서 확인한 단순사건구조를 가졌음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는 한국어 동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다. [표 2]에서 확인하였듯이, 한국어에서 단순사건구조를 가졌음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모두 행위동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피동사를 갖는 행위동사들을 살펴보면 해당 주어와 목적어와의 의미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즉 주어의 책임이 상황을 지배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26) ㄱ. 그 친구는 뒤에서 사촌을 헐뜯었다.  
       ㄱ'. 사촌이 뒤에서 그 친구에게 헐뜯졌다.  
       ㄴ. 그는 몽둥이를 휘둘렀다.  
       ㄴ'. 그에게 휘둘리는 몽둥이.  
       ㄷ. 암탉이 알을 품었다.  
       ㄷ'. 알이 암탉에게 품졌다.
- (27) ㄱ. 상대 선수와 기량을 겨루다.  
       ㄴ. 그는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  
       ㄷ. 아이가 목을 가누다.  
       ㄹ. 나는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다.  
       ㅁ. 그녀는 저녁이면 남편과 해변을 거닐었다.

(26)~(27)의 술어들은 모두 단순사건구조를 가진 타동사, 즉 행위 동사들이다. (26)은 이러한 행위동사들에 대응되는 피동사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헐뜯다’에는 ‘헐뜯기다’, ‘휘두르다’에는 ‘휘둘리다’, ‘품다’에는 ‘품기다’라는 피동사가 각각 대응하여 존재하고 있다. 한편, (27)의 동사들은 (26)과 같은 행위동사이지만 대응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동사들이다. ‘겨루다’, ‘골다’, ‘가누다’에는 그에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6)과 (27)의 술어에서 이렇게 피동사 존재 여부가 차이 나는 까닭을 주어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에서는 ‘사촌, 몽둥이, 알’이라는 대상 목적어가 ‘헐뜯다’, ‘휘두르다’, ‘품다’라는 주어의 행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각 문장에서 ‘사촌, 몽둥이, 알’이라는 목적어들은 주어가 헐뜯고, 휘두르고, 품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황이 완성된다. 즉, (26)의 문장들에서는 각 주어가 각 상황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7)에 나타난 술어들의 대상 목적어인 ‘기량, 코, 목’은 (26)의 목적어들에 비해 주어의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대상이 아니다. (27ㄱ)의 목적어인 ‘기량’은 선수들이 겨룬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며, (27ㄴ)의 ‘코’ 역시 그가 코를 곤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27ㄷ)의 ‘목’ 역시 아기가 가누는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기가 목을 가누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목’ 그 자체가 중요한 영향을 받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27ㄹ)과 (27ㅁ)의 ‘수학, 해변’ 역시 주어가 가르치거나 거닌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 전해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 중 특히 (27ㄹ)과 (27ㅁ)의 ‘가르치다, 거닐다’가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가르치다’는 ‘어간말에 이미 i를 가진 다음절 어간 동사’라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제약의 범위에서, ‘거닐다’는 ‘장소 옮김의 이동 동사(Movement Verb)’라는 의미론적으로 조건된 제약의 범위에서 각각 다루어진 바 있다.<sup>14)</sup> 그러나 단순 사건구조를 가진 행위동사이면서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는 이 동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존의 음운론적, 의미론적 제약 조건 논의보다

---

14) 피동사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에 대한 논의는 임홍빈(1998: 310)에 정리된 것을 참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동사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 :

A.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것.

① 어간말에 이미 i를 가진 다음절 어간 동사. 예, 던지다, 때리다, 지키다 등.

② 어간 모음이 장음인 일부 다음절 어간 동사. 예, 묻:다(問), 얻:다(得) 등.

B. 의미론적으로 조건된 것.

① 장소 옮김의 이동 동사(Movement Verb.). 예, (밤길을) 가다, (길을) 걷다 등.

② 대칭 동사(Symmetric Verb). 예, (친구를) 만나다, (아버지를) 닮다 등.

③ 수혜 동사(Benefactive Verb). 예, 얻다, 잃다, 입다, 보내다 등.

④ 경험 동사(Experiential Verb), 예,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등.

C. 통사론적으로 조건된 것.

① 여격어를 요구하는 여타 동사(Ditransitive Verb). 예, 주다, 받다, 드리다 등.

D.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된 것.

① ‘하다’ 및 ‘하다’ 계 동사. 예, (성공을) 하다, 취하다, 악하다 등.

② 일부의 관용어. 예, 배꼽을 잡다, 꼬리를 치다 등.

도 주어의 책임 여부가 훨씬 설득력 있는 원인 요소가 된다고 본다. 즉 (27)의 문장들은 (26)의 문장들과는 달리 각 문장의 주어가 상황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차이가 (26)과 (27)에서 피동사의 존재 여부를 달라지게 했다는 것이다.

#### IV. 대당 피동사가 없는 완성 동사의 존재

3.1에서 살펴보았듯이, 피동사를 갖는 동사들 중 대부분의 동사는 완성 동사였지만, 3.2 에서 표준국어대사전 피동사 목록을 분석한 결과 모든 피동사에 대응되는 능동사가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동사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김윤신(2001)에서 강조했던 완성 동사는 대부분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김윤신(2001)에서 모든 완성 동사가 피동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피동의 짝을 갖는 동사와 창조동사를 제외한 완성 동사만이 피동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완성 동사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로 그에 대응되는 피동사가 존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완성 동사들의 대응 피동사 존재여부를 검토해보기로 하였다.

완성 동사의 목록은 조민정(2000)에서 검증해낸 완수 동사구 목록을 참조하였다. 조민정(2000)의 완수 동사구는 남승호(2005) 등이 분류한 완성 동사의 상적 속성과 비교해 볼 때 모든 검증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완성 동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 (28) 완성 동사구: 가라앉다, NP<sub>2</sub> -를 감다3, NP<sub>2</sub> -를 갖추다, 개다1, NP<sub>2</sub> -를 개다2, NP<sub>2</sub> -를 거두다, NP<sub>2</sub> -를 거르다, NP<sub>2</sub> -를 건너다, NP<sub>2</sub> -를 건너다2, NP<sub>2</sub> -를 고치다, NP<sub>2</sub> -를 굽다, NP<sub>2</sub> -를 그리다, NP<sub>2</sub> -를 깎다, NP<sub>2</sub> -를 까다, NP<sub>2</sub> -를 꺼내다, NP<sub>2</sub> -를 꾸리다, NP<sub>2</sub> -를 NP<sub>3</sub> -으로 꾸미다, NP<sub>2</sub> -를 끝내다, NP<sub>2</sub> -를 끼다1, NP<sub>2</sub> -에 NP<sub>3</sub> -를 끼우다, NP<sub>2</sub> -를 NP<sub>3</sub> -에 넣는다, NP<sub>2</sub> -를 낳다, NP<sub>2</sub> -를 녹이다, NP<sub>2</sub> -를 덧붙이다...외 157개

(28)의 완성 동사구 가운데 타동사가 아닌 것들을 제외하고 일부 목록에 대하여 대응되는 피동사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동사의 피동사의 존재 여부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다.

[표 3] 완성 타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 존재 여부 목록

항목	피동사 존재여부	비고/예문
NP <sub>2</sub> -를 감다3	'감다0111'의 피동사	눈이 감기다
	'감다0311'의 피동사	비디오테이프가 잘 감기지 않는다.
NP <sub>2</sub> -를 갖추다	없음	
NP <sub>2</sub> -를 개다2	{북} '개다02'의 피동사	흙탕물이 개여 발린 신발. <선대>
	{북}'개다03'의 피동사	꼭게 개인 새 양복. <선대>
NP <sub>2</sub> -를 거두다	없음	
NP <sub>2</sub> -를 거르다	없음	
NP <sub>2</sub> -를 건너다	없음	
NP <sub>2</sub> -를 건다2	없음	
NP <sub>2</sub> -를 고쳐다	없음	
NP <sub>2</sub> -를 굶다	없음(사동사는 있음)	
NP <sub>2</sub> -를 그라다	없음	
NP <sub>2</sub> -를 깎다	'깎다&1111'의 피동사	연필이 잘 깎이다.
	'깎다&1122'의 피동사	날카로운 칼날에 뼈죽뼈죽 자란 잔디가 깎였다.
	'깎다&1133'의 피동사	봉급이 깎이다.
	'깎다&1144'의 피동사	술이나 한잔 먹고 싶으나 주기가 있어 만나면 위신이 깎이고 또 어제 모양으로 흐지부지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헤어질 것 같아서 참기로 하였다. <염상섭, 삼대>
	'깎다&116'의 피동사	호봉이 깎이다
NP <sub>2</sub> -를 까다	'까다0112'의 피동사	알에서 껌 병아리.
NP <sub>2</sub> -를 꺼내다	없음	
NP <sub>2</sub> -를 꾸리다	없음	
NP <sub>2</sub> -를 NP <sub>3</sub> -으 로 꾸미다	없음	
NP <sub>2</sub> -를 끝내다	없음	
NP <sub>2</sub> -를 끼다1	피동사의 준말임.	'끼다03'의 피동사인 '끼이다01'의 준말.
NP <sub>2</sub> -에 NP <sub>3</sub> -를 끼우다	없음	
NP <sub>2</sub> -를 NP <sub>3</sub> -에 넣는다	없음	
NP <sub>2</sub> -를 낳다	없음	
NP <sub>2</sub> -를 녹이다	없음	'녹다01의 사동사임
NP <sub>2</sub> -를 덧붙이다	없음	붙대11의 사동사가 '붙이다'임.

[표 3]에서 확인한 결과 완성 타동사임에도 그 동사에 대응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우리는 완성 동사임에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지 못하는 동사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완성 동사는 그 속성이 기본적으로 완결의 사건을 나타내는 피동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높은 비율로 대응되는 피동사를 가지는 동사 부류였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같은 완성 타동사들 사이에도 이처럼 대응되는 피동사의 존재 여부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긴다. 한국어에서 어떤 동사가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느냐 마느냐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아직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이처럼 일부 완성 타동사가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의 방향만을 간단히 밝히고자 한다.

[표 3]에서 언급한 동사들 중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지 못하는 완성 타동사는 다음과 같다.

- (29) NP<sub>2</sub> -를 건너다, NP<sub>2</sub> -를 건다2, NP<sub>2</sub> -를 고치다, NP<sub>2</sub> -를 그리다,  
NP<sub>2</sub> -를 꾸리다, NP<sub>2</sub> -를 NP<sub>3</sub> -으로 꾸미다, NP<sub>2</sub> -를 녹이다, NP<sub>2</sub> -를  
덧붙이다, NP<sub>2</sub> -를 거두다, NP<sub>2</sub> -에 NP<sub>3</sub> -를 끼우다, NP<sub>2</sub> -를 NP<sub>3</sub> -에  
넣는다, NP<sub>2</sub> -를 굶다, NP<sub>2</sub> -를 낳다.

이들 동사들 중에서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을 본고의 관점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동사는 ‘NP<sub>2</sub> -를 건너다, NP<sub>2</sub> -를 건다2’ 정도뿐이다. ‘건너다, 건다’ 동사는 장소 옮김의 이동 동사(movement verb)들로, 의미론적인 제약 조건에 해당한다고 여겨져 온 동사들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 동사들에 대해서는 3.2에서 다루었던 ‘의미론적 타동성’의 개념으로 그 피동사의 부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는 종로 거리를 걸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해당 문장의 주어인 ‘아이, 그’가 목적어인 ‘횡단보도, 종로 거리’를 건너고 걷는다는 사실을 통해 목적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또 ‘횡단보도, 종로 거리’가 이 동사의 행위 사실과 더불어 어떤 완전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즉 이 동사들에서는 상황을 결정하고 목적어에 영향을 주는 주어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기에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9)에서 ‘건너다, 건다’ 외의 동사들에 대해서는 의미론적 타동성 개념 외의 방법으로 대당 피동사의 부재를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요는 ‘건너다, 건다’와 그 이외의 동사들이 보이는 ‘-어지다’ 구성에서의 결합 차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동사 ‘건너다, 건다’는 피동사뿐만 아니라 피동 표현 자체가 어색한 동사다. 의미론적으로 타동성을 지니지 않는 이들 동사를 사용한 예문인 ‘횡단보도가 건너지다, 종로 거리가 걸어지다’는 억지로 만들 수는 있으나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의미론적 타동성이 피동 일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까닭이다. 그러나 (29)에서 ‘건너다, 건다’ 외의 동사들은 대응하는 피동사는 없지만 ‘-어지다’와 결합한 피동 표현으로는 화자들 사이에서 많이 쓰인다. 예컨대 ‘의심의 시선이 거뒤틀지다’, ‘가전제품이 수리공의 손에 고쳐지다’,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지다’ 등의 표현은 문법성 판단에 어긋남 없이 화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처럼 (29)에서 ‘건너다, 건다’ 외의 동사들은 의미론적 타동성의 개념에서 설명되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예컨대 피동사가 존재할 수 있는 한국어에서만 고유의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에서 접미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명료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0) NP<sub>2</sub> -를 고치다, NP<sub>2</sub> -를 그리다, NP<sub>2</sub> -를 꾸리다, NP<sub>2</sub> -를 NP<sub>3</sub> -  
으로 꾸미다, NP<sub>2</sub> -를 녹이다, NP<sub>2</sub> -를 덧붙이다

(30)의 동사들은 어간 말에 i를 가진 다음절 어간 동사로, 음운론적인 제약에 따라 피동사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로 일컬어졌던 항목들

이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발음의 편의성과 같은 명료한 음운론적 근거가 있지는 않고, 다만 그 분포의 통계 결과에 근거한다. 그러나 김성규(1987: 47)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이-, -히-, -리-, -기-’가 나타나는 음운론적인 환경의 경향은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컨대 같은 ‘-ㄷ-’ 규칙 용언 상에서도 ‘걷다’에서는 접미사 ‘-히-’가 붙은 ‘걷히다’가 피동사이지만, ‘뜯다’에서는 접미사 ‘-기-’가 붙은 ‘뜯기다’가 피동사이다. 한국어에서는 피동사에 나타나는 접미사들이 이처럼 음운론적으로 일정한 규칙을 따라 선택되지 않고 자의적인 분포를 보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음운론적인 제약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은 명료한 설명이 될 수 없다.

(31) NP<sub>2</sub> -를 거두다

(32) NP<sub>2</sub> -에 NP<sub>3</sub> -를 끼우다, NP<sub>2</sub> -를 NP<sub>3</sub> -에 넣는다

(33) NP<sub>2</sub> -를 굶다, NP<sub>2</sub> -를 낳다.

(31)~(33)에 대해서도 기존 논의의 방향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은 수혜동사(benefactive verb)로 의미론적으로 피동사의 존재가 제약된다고 알려져 있는 유형의 동사다. 수혜동사는 그 어휘의 기저에 이미 피동의 의미가 갖추어져 있어 대당 피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 (32)는 여격어를 요구하는 동사(Ditransitive Verb)들인데, 이러한 동사들 또한 그 근거는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 (33)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상이 생기는 산출동사다. 김윤신(2001) 및 남승호(2007: 96)에서 밝혔듯이 한국어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공히 존재하는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는 피동사가 존재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33)과 같은 동사들은 대응하는 피동사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피동사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가 갖는 요건들에 대한 이러한

기준들은 아직 모든 연구자들로부터의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하며, 여러 예외를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NP<sub>2</sub>-를 거르다, NP<sub>2</sub>-를 꺼내다, NP<sub>2</sub>-를 끝내다' 등 여전히 그 대당 동사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동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어떤 동사들에서 대당 피동사가 부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기존의 논의의 방향을 간단히 밝히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 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접미피동법을 동사의 상적 속성에 따라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우선 동사의 상적 속성 분류 기준으로 Vendler(1967)와 남승호(2005, 2004/2007), 조민정(2000)의 기준을 검토해본 후, 필요한 상적 속성 검증 도구를 선별하여 실제 피동사 목록의 원형 동사에 적용해 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피동사 목록의 원형동사들을 앞선 상 분류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본 결과 반드시 복합사건구조를 갖는 능동동사만이 피동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태의 완성을 의미하는 완성 동사의 상적 속성은, 기본적으로 완결된 사건을 나타내는 피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으므로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는 동사 중에서는 완성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는 한국어의 동사 중에는 복합사건구조를 가지는 동사뿐만 아니라 단일사건구조를 가진 행위동사도 많이 있었다. 또한, 복합사건구조를 가진 완성타동사이더라도 대응되는 피동사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의 상적 속성 및 사건구조는 한국어의 접미피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큰 경향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대응되는 피동사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고는 연구 과정에서 한국어 동사의 대당 피동

사의 존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서술어의 상적 부류, 사건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의미론적 타동성(semantic transitivity)의 여부에도 있음을 밝혔다.

연구 과정에서 피동사의 존재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대해 명료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본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가 접미피동과 동사의 상적 속성간의 관련성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본 후, 그 타당성을 실제 피동사목록을 바탕으로 직접 검증해 본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이처럼 접미피동과 한국어 동사의 상적 속성이 어느 정도 관련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접미피동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실제 예문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운신(2001),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 사동화와 피동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수경(2011),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 남승호(2005), 한국어 술어의 상 분류 기준. 『의미 구조와 통사구조, 그리고 그 너머』. 한국문화사, 259-286쪽.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숙영(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연구. 한국문화사.
- 이상억(1999),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임홍빈(1998), 국어 피동화의 의미, 국어문법의 심층 3, 태학사, 307-332.
- 조민정(2000), 국어의 상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omrie, B.(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Syntax and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ttia-Viviés, M.(2009), The Passive and the Notion of Transitivity. In: *Review of European Studies* Vol 1, No.2, pp.94-109.
-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별첨 1] 표준국어대사전 피동사 목록

가려보이다, 가로걸리다, 가로놓이다, 가로막히다, 가로물리다, 가로보이다, 가로  
질리다, 가로채이다, 가리이다, 갇히다, 갈리다, 갈리다, 갈리다, 갈리다, 갇히다, 감  
기다, 감기다, 감빨리다, 감싸이다, 감추이다, 깨발리다, 깨이다, 깨이다, 거들리다,  
거머잡히다, 거머쥐우다, 건너다보이다, 건너질리다, 건너짚이다, 건들리다, 걷어  
채다, 걷잡히다, 걷질리다, 걷히다, 걷히다, 걷히다, 걸리다, 걸메이다, 걸어채우다,  
걸키우다, 곱뜯기다, 깨발리다, 견질리다, 겹놓이다, 겹들이다, 겹쌓이다, 겹쓰이다,  
겹씩우다, 결달리다, 결들리다, 곁딸리다, 고르잡히다, 곤두박이다, 곤이들리다, 곱  
걸리다, 곱꺾이다, 곱놓이다, 곱씩히다, 공먹히다, 괴이다, 괴이다, 구기질리다, 구  
어박히다, 굵어보이다, 굵죄이다, 그러안기다, 그슬리다, 그을리다, 굵히다, 까뒤집  
히다, 까불리다, 까이다, 꺾이다, 깔리다, 깔보이다, 깨다, 깨물리다, 깨이다, 꺼들리  
다, 꺼들리다, 꺾이다, 꺾문히다, 꺾잡히다, 꼬라박히다, 꼬이다, 꼬집히다, 켜히다,  
꽃히다, 꺾이다, 꾸이다, 꿇리다, 꿰뚫리다, 꿰이다, 꿰질리다, 꼬당기우다, 꼬들리  
다, 꼬들리우다, 꿇기다, 끌리다, 끼얹히다, 끼이다, 나누이다, 낙인찍히다, 낚이다,  
날리다, 낚보이다, 내걸리다, 내놓이다, 내다보이다, 내들리다, 내떨리다, 내뚫리다,  
내려다보이다, 내리깔리다, 내리꽃히다, 내리눌리다, 내리덮이다, 내리밀리다, 내  
리박히다, 내리쌓이다, 내리질리다, 내물리다, 내밀리다, 내보이다, 내부딪히다, 내  
뽀기다, 내질리다, 내쫓기다, 내휘둘리다, 내흔들리다, 널리다, 넘겨다보이다, 넘겨  
박히다, 넘보이다, 노느이다, 놀리우다, 놓이다, 누이다, 놀리다, 다듬기다, 다물리  
다, 다물리다, 다밀리다, 다불리다, 다지우다, 다질리다, 다쫓기다, 닭이다, 단히다,  
달리다, 달아매이다, 담기다, 담기다, 대질리다, 더위잡히다, 덜리다, 덧걸리다, 덧  
깔리다, 덧끼이다, 덧놓이다, 덧달리다, 덧덮이다, 덧밀리다, 덧실리다, 덧쌓이다,  
덧얹히다, 덮싸이다, 덮쌓이다, 덮쓰이다, 덮이다, 덮치우다, 테샅기다, 도두보이다,  
되감기다, 되걸리다, 되깔리다, 되물리다, 되물리다, 되밀리다, 되박이다, 되술래잡  
히다, 되쓰이다, 되쓰이다, 되씩히다, 되잡히다, 되쫓기다, 되틀리다, 되풀리다, 둘  
러막히다, 둘러싸이다, 둘리다, 뒤꼬이다, 뒤놓이다, 뒤덮이다, 뒤말리다, 뒤물리다,  
뒤바꾸이다, 뒤발리다, 뒤밟히다, 뒤북이다, 뒤섞이다, 뒤쌓이다, 뒤엎히다, 뒤엎이  
다, 뒤잡히다, 뒤집히다, 뒤쫓기다, 뒤채이다, 뒤탈리다, 뒤틀리다, 뒤흔들리다, 드  
놓이다, 드들리다, 들까불리다, 들내놓이다, 들뜨이다, 들리다, 들리다, 들볶이다,  
들여다보이다, 들이꽃히다, 들이꽃히다, 들이끼이다, 들이끼이다, 들이맞히다, 들  
이물리다, 들이물리다, 들이밀리다, 들이밀리다, 들이박히다, 들이박히다, 들이쌓  
이다, 들이쌓이다, 들쫓기다, 들추이다, 디밀리다, 따라잡히다, 따잡히다, 딸리우다,  
땅이다, 떠다밀리다, 떠다박질리다, 떠들리다, 떠밀리다, 떠박질리다, 떠받들리다,  
떠받히다, 떠실리다, 떨리다, 떨리다, 떼밀리다, 떼이다, 뚫리다, 뜨이다, 뜨이다, 뜨  
이다, 뜨이다, 뜯기다, 련달리다, 막걸리다, 막보이다, 막질리다, 막질리다, 막히다,

말리다, 맞걸리다, 맞걸리다, 맞놓이다, 맞다들리다, 맞뚫리다, 맞물리다, 맞바라보  
 이다, 맞부딪히다, 맞잡히다, 맞접히다, 맞쫓이다, 맞떨리우다, 매달리다, 매이다,  
 매이다, 맺히다, 먹히다, 메이다, 모이다, 물리다, 물리우다, 물밀리다, 물박히다, 무  
 질리다, 무찔리다, 묵이다, 문질리다, 묻히다, 물리다, 몽그질리다, 미이다, 믿기다,  
 밀리다, 밀물리다, 밀치이다, 밍보이다, 바꾸이다, 바라보이다, 바로잡히다, 박질리  
 다, 박히다, 받들리다, 받히다, 발리다, 발리다, 밟히다, 밟이다, 배꼬이다, 배틀리  
 다, 버르잡히다, 버물리다, 번놓이다, 번질리다, 벌리다, 벗기다, 베이다, 보이다, 보  
 잡히다, 보채이다, 북이다, 부딪치이다, 부딪히다, 부리이다, 부치이다, 분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붙들리다, 붙떨리다, 붙박이다, 불안기다, 붙잡히다, 비꼬이다, 비  
 추이다, 비치우다, 비치이다, 비틀리다, 빗놓이다, 빗보이다, 빨리다, 빨리다, 빼돌  
 리우다, 빼앗기다, 빼우다, 뺨질리다, 뺨히다, 뺨거벗기다, 뺨히다, 사로잡히다, 삶  
 기다, 쉼바꾸다, 쉼이다, 설삼기다, 설잡기다, 설잡히다, 손꼽히다, 숯보이다, 슬땀  
 히다, 슴배이다, 실리다, 심기다, 싸리우다, 싸이다, 싸잡히다, 쌓이다, 썰리우다, 썰  
 먹히다, 썰리다, 쏘이다, 쓰이다, 쓰이다, 쓰이다, 쓰이다, 쓸리다, 쓸리다, 쓸치우다, 씹히  
 다, 씻기다, 아물리다, 악다물리다, 악물리다, 안기다, 알아채이다, 앓기다, 앞질리  
 다, 앞보이다, 어긋물리다, 어물리다, 억눌리다, 억물리다, 엇히다, 얼리우다, 얼보  
 이다, 얼섞이다, 얼치우다, 엮매이다, 엮히다, 엮히다, 엇걸리다, 엇걸리다, 엇깎이  
 다, 엇꼬이다, 엇달리다, 엇물리다, 엇바꾸이다, 엇베이다, 엇보이다, 엇섞이다, 엉  
 클리다, 엮눌리다, 엮이다, 예둘리다, 예워싸이다, 예이다, 여단히다, 엮이다, 열리  
 다, 엮보이다, 옥갈리다, 옥땀히다, 옥죄이다, 울리밀리다, 울리쌓이다, 읊매이다,  
 읊땀히다, 읊히다, 읊켜잡히다, 읊패다, 웅다물리다, 외틀리다, 우러러보이다, 옥다  
 질리다, 옥박히다, 옥죄이다, 옥질리다, 읊켜잡히다, 읊켜쥐우다, 읊패다, 옥다물리  
 다, 옥물리다, 옥박질리다, 옥박히다, 옥죄이다, 이끌리다, 이물리다, 일컬리다, 읽  
 히다, 잇놓이다, 잇달리다, 잇대이다, 잇히다, 잔갈리다, 잘리다, 잘리다, 잠기다, 잠  
 기다, 잡아끌리다, 잡아먹히다, 잡히다, 재질리다, 재질리우다, 저미이다, 적히다,  
 집치이다, 집히다, 졸리다, 졸리다, 죄이다, 주물리다, 쥐어뜯기다, 쥐어질리다, 쥐  
 여발리다, 쥐이다, 지르밟히다, 지리밟히다, 지지눌리다, 지지우다, 지질리다, 질리  
 다, 집히다, 짓깔리다, 짓끌리다, 짓눌리다, 짓눌리우다, 짓물리다, 짓물리다, 짓뭇  
 개이다, 짓밟히다, 짓쫓이다, 짓쫓기다, 짓찔리다, 짓찔기다, 짓뺨기다, 짜이다, 찢  
 리다, 찢리우다, 찢들리다, 쫓이다, 쫓기다, 쫓기다, 찢히다, 찢히다, 찢리다, 찢기  
 다, 차이다, 책잡히다, 처담기다, 처박히다, 처다보이다, 처들리다, 추슬리다, 치달  
 리다, 치뚫리다, 치먹히다, 치물리다, 치받들리다, 치받히다, 치쌓이다, 치엮이다,  
 치이다, 치이다, 치째이다, 켜이다, 태이다, 털리다, 텅기우다, 트이다, 틀리다, 틀어  
 박히다, 파묻히다, 파이다, 팔리다, 팔리우다, 펴이다, 풀리다, 품기다, 하비우다, 할  
 퀴이다, 훑이다, 허물리다, 허비우다, 헐뜯기다, 헐리다, 헛놓이다, 헛들리다, 헛보  
 이다, 헛잡히다, 헛짚이다, 형클리다, 훑이다, 흠패다, 흠땀이다, 훑이다, 흠패다, 휘



감기다, 휘뿔이다, 휘둘리다, 휘말리다, 휘몰리다, 휘밀리다, 휘불리다, 휘어박히다,  
휘엎히다, 휘여잡히다, 휘주물리다, 휩싸이다, 휩쓸리다, 흥잡히다, 흔들리다, 휩쓰  
이다, 흘이다